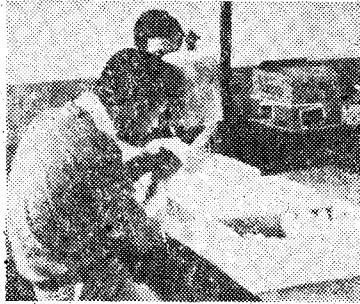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소식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 실시

대한양계협회는 해외파견 감별사 자격 시험을 3월21일 동대문 아파트 B동 301호실 한미감별학원에서 실시키로 했다. 원서접수 마감은 2월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①원서 1통(본회소정양식), ②이력서 1통, ③주민등록초본 1통 ④반영합판 사진 3매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파견감별



해외파견 감별사 시험광경

사는 73년현재 세계 27개국에 191명이 취업했고 최근에도 각국으로부터 많은 초청의뢰가 오고 있다. 자세한 전망과 감별사 현황등은 본지 1월호에 게재한바 있다. 연락은 대한양계협회 (전화 3571~2)로 하면된다.

계란등급재조정

특란을 60g 이상으로 下向

석유효모사료 급여시험 실시

대한양계협회 검정소는 현재 부족한 사료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와 협조하여 석유효모 사료급여시험을 실시, 2월9일에 부모일터 2,000수를 입추 총 8주간의 사양시험에 들어갔는데 시험결과가 끝나는데로 석유효모단백의 이용성과 경제성등을 분석 그 결과를 본지에 게재 할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계란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6일 협회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현재 쓰고있는 등급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모든 양계업자에 통고 실행하기로 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종래특란등급기준 61g이상 하던 것을 60g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란을 54g~60g으로, 중란을 47~54g 소란을 42g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합의된 사항은 양계협회지도조사부를 통해 전국 양계업자에 전달되어 실행되고있

다.

종 전 등급

특란 61g이상

대란 54g이상~61g미만

중란 48g이상~54g미만

소란 42g이상~48g미만

경란 42g미만

개정된 등급

특란 60g이상

대란 54g~60g미만

중란 47g이상~54g미만

소란 42g이상~47g미만

경란 42g미만

월례강습회 개최

양계협회는 지난 2월4일 여성회관에서 오후들어 처음으로 월례 강습회를 가졌다. 많은 양축가들이 참석한 이번 강습회에서 서울시 축정계장 황인옥씨의 양계산물소비추세와 신촌부화장 강금노 사장의 1974년도 양계전망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많은 양계가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는 어 느데 보다는 진지한 수강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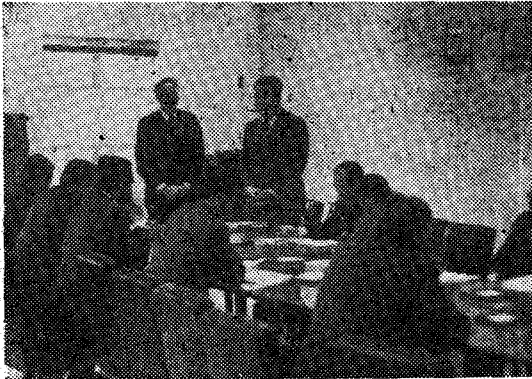
양계산업위기대책 위원회 성과분석

대한양계협회가 현재의 양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된 양계산업위기 수습대책 위원회(위원장강금노)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10일(35일간)까지 실시한 전면입란중지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이번시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는데 그 효과로는 ①협회의 부회분과위원회 지부조직강화

②부화업자의 결속촉구 ③앞으로의 문제점해결에 무한한 가능성의 발견, ④능력이 분량한 종계의 조기도태, ⑤양계산물의 과잉생산방지 ⑥조생추가가격의 정상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계산업위기 수습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양계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養鷄產物 流通改善 및 消費 증대 세미나 개최

業
界
情
報



세미나 광경

지난 2월 23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 美國飼料 糞物協會는 共同주관으로 양계산물유통개 선과 소비증대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 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사료곡물협회의 용역으로 조사연구된 보고서를 주연구자 윤효직教授의 발표에 이어 오후에는 열띤 討論을 벌였다.

이날 유운수사료협회장, 오봉국교수, 오세정교수 및 손퓨리나사장, 이영석퓨리나 영업부장, 와드카길 부사장, 이국진카길부장, 우드곡물협회지부장, 박영인 곡물협회차장, 이필용양계협회부회장, 송정택 전무, 유종래 대구축협조합장, 남일훈 농수산부 이

용계장, 황인옥 서울시 축정계장 정성준 농수산부(축산과)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효직 교수는 양계산물의 수요구조, 생산구조, 유통구조, 소비구조 등으로 나눠 연구결과를 자세히 발표하였고 6가지의 대책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사료협회 유회장은 "축산물 가격 조정은 완전통제나 완전자유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연 중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농협 같은 단체가 이일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퓨리나 이영석 부장은 "축산물이 가격기 능과 경쟁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쇠고기, 돼 지고기의 협정가격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곡물협회 박차장은 "좋은 의견이 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축산업 계 중에서는 그대로 사료공장이

가장 힘이 있으니 사료업체가 앞 장서 주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 며,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감제수요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비축진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유운수 회장 濠洲 向發

사료협회 유운수회장은 상공부 장관 張禮準을 단장으로 관민합 동 대양주 및 동남아지역 자원사 절단(26명)의 일원으로 지난 2월 27일 호주에 약 2주간의 예정 으로 출국하였다.

농수산부 인사이동

농정차관보 任煥得
식산차관보 南 旭
기획리실장관 威萬準
농산차관보 尹勤煥
축산국축산과장 李仁奎
정부는 지난 2월 22일자로 농 수산부 농정차관보에 任煥得식산 차관보, 식산차관보에 南旭농산 차관보, 기획관리실장에 威萬準

농정차관보를 전보발령하고 농산 차관보에 尹勤煥 청와대비서관을 승진발령했다. 정부는 또한 25일 차로 축산국축산과장에 李仁奎씨 를 발령하고 전許玄道 축산과장 을 국립농산물검사소 서무과장으로 발령하였다. 전축산과중소가 축계장 李光熙씨는 동립산업 사 료담당 상무로 전임 하였다.

농수산부 74년 양계사 업지침시달

농수산부는 74년도 양계사업지 침을 본회에 시달했는데 그 골자 를 보면 중계등록사업에 있어 G.P.S는 1수당 20원, PS는 수 당10원씩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육용중계수입추진을 하는데 PS 64,000수, G.P.S 5,000수를 배정 총 114,000수(G.P.S는PS를 환산 한수수입)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 는데 수입추천시 수입추천수수료 C&F가격 2%를 징수할 것을 시 달한 바 있다.



축산진흥회 定期總會

새 會長에 金在春 議員

축산진흥회는 지난 2월 16일 定期總會를 개최하고 1973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1974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심의 확정지었다. 새회장에는 현대한양계협회 회장인 金在春 議員이 被選되었다.

畜産對策協經 會 제3차 협의 회 개최

축산대책 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金在春, 부위원장에 유운수, 유종대, 육종용을 선임하고 제3차 회의를 지난 2월 27일 개최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 각 부문별 懸案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고 관계 요로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동두천지구

양계협회 구성

동두천지구의 양계업자가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동두천지구 양계업자들의 모임을 조직했는데 회장에는 최진섭씨가 피선되었다.

한국바브(주)

—주주총회 및 월례회—

한국 바브(주)(협회장 : 윤경중)은 지난 2월20일 주주총회를 갖고 1973년도의 결산과 1974년도의 수지예산을 가결했다. 주주총회가 끝난후 바브(주)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협회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 현대양계사와 전 바브(주) 회장 최상진씨에게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부화중단에 따른 결과토론과 종계등록사업을

한국고킹(주)

모유(乳素) 유소(乳素)와 수용성 종합비타민 판토틸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고킹(대표: 김운호)은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태평케미칼에서 근무하던 김영부씨를 특채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기로 했다.

미국사료물곡협회 비육우세미나예정

3월 26일 서울, 3월 20일 대관령서

미국사료 곡물협회는 오는 3월 18일 육우전문가 차리 김순(현재 일본 가고지마의 다이에 목장)을 초청하여 3월 26일 오전 10:30분부터 사료협회회의실에서 「일본의 비육우 사업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비육우 사업검토」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비육우 사업에 관한 슬라이드

드 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참석범위는 비육우사업에 관심있는 실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미국사료곡물협회 박영인차장(23-5192, 5193)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3월 20일에는 대관령고령지 시험장에서 같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한다.

철저히할 것과 부화장위생관계 74년도 P.S 주문의 재확인 등 광범위한 토론을 가졌다.

세이버협회

한국세이버협회(협회장: 이필용)는 지난 2월7일 협회월례회를 갖고 그동안 월례회의에 참석이 부진하고 협회발전을 위해 적극성이 결여된 영육농장, 대구부화장을 제명하고 협회회비를 미납한 영신부화장도 제명했다. 한편 같은 세이버협회원인 삼화농원이 자진 탈퇴하였다.

한얼농산

온천의 본고장인 충남온양에 자리잡고 있는 종합농장 한얼농산은 새로이 부화장을 신설하고 충남 전 일원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초생주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며 74년도를 양계업계로 부터

공인 받는 시범의 해로 정하고, 모든 젊음의 정열을 받쳐 노력하여 신레받는 축산인이 될것을 약속했다. 주소와 전화는 아래와 같다.

주소 : 충남 온양읍 모종리 455
전화 : 천안 2979(종계장)

사료협회 사료공급 합리화 간담회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월25일 최근 빚어지고 있는 밀기를 품귀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배합사료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현행배합사료와 함께 강류가 일체 들어가지 않은 농축사료를 별도제조 공급하는 안을 가지고 사료기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양축가의 입장으로 볼때 농축사료의 생산은 실제로 가격인상으로 불수밖에 없어 문제점이 되고 있다.

대한사료 부분육 생산 개시

대한사료(대표: 김시호)는 부 로이공장외의 본격적인 가공으로 계 품 생산을 다양화하여 일반용 통 닭, 구이용 통 닭, 가정용 통 닭, 부 분육 등으로 판매하기로 했는데, 종래에는 육계하면 통 닭만을 정 육으로만 판매했는데 제품 판매를 다양화 함으로서 일반가정에서 소량의 닭고기를 기호에 맞게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도 계 후 닭 털, 내장, 혈액 등 폐기물 은 수거 하여 사료로 이용한다고 한다.

일본 明治乳業 축산부문에 본격투자

일본 明治乳業은 축산관계 부 문 강화책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伸張이 계속되 는 日本國內의 畜産 수요에 대비, 이분야에서의 下向이 심해짐에 따라 停滯의 징조마저 보이고 있 는 乳業部門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 기 위한 것으로 동사에서는 지 난 71년 본사내에 설치한 畜産部 를 중심으로 장기경영계획을 기 본으로 한 資本투자에 주력할 방 침.

한일사료 사무실 신축

한일사료(주)(대표: 차두홍)는 건평 60평의 사무실을 신축하였 다. 현대식 건물로 새로말끔이 단 장되어 그 면모를 새로이 했다. 주소는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하 다.

전화 96-3450, 4550

돼지 500두 무상분양 중앙일보 개발본부에서

중앙일보 개발본부는 3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지사, 중앙일보 사장, 용인군수, 경찰서장 등 용 인군민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용 인군 포곡면 일대의 새마을 운동 에 적극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돼 지 500마리를 무상 분양하리라 한다.

한기수씨 영농실습차 도미

한국사료첨가제(대표: 최죽송) 에서 근무중이던 한기수씨가 “농 업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하여, 해외파견 영농실습을 시키는데 선 발되어 지난 2월 20일 도미했다 동씨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개인 목장에 배치되어 앞으로 1년간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은 수원농 립고등학교내 “농업교육연구회” 로 문의 할사.

녹십자 수의약품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마웅 호)는 영국 웰컴(Well Come) 사 에서 연구개발된 제 3의 항생물 질 트리메토프림제인 “트라이브 리센” 주사액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人體용인 박트 립이나 셉트림, 트리프림등과 같 은 제제의 성분으로 새끼돼지의 설사등 잘 낫지 않는 질병에 특효 약이라 한다.

한국축산

한국축산사료(대표: 정동현)는 전동용제 2농장장이 락회기름의

원종돈의 F₁ 유상분양도계획 중앙일보 개발 본부는 원종돈 F₁ (번식모돈)을 우 10마리와 소 1마리 를 한구좌로 하여 금년도에 1700두를 분양할 계획



연암축산기술고등학교로 전임함 에 따라 공석중인 제 2농장장의 임무를 현 상무이사인 김수업 박 사가 겸임하기로 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한국지부

국제식량농업기구(F.A.O)한국 지부(회장: 박동묘)는 1974년 중 으로 실수계획하고 있는 각종 국 제회의와 세미나중 119건을 선정 발표하고 각 회원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동서가축약품 신화특수 사료 인수

동서가축약품(대표: 구경진)은 지난 73년말 조성우씨가 경영하 던 신화특수사료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경인특수사료라 개정하고 공장을 확장 종아지용 분유와 돼 지새끼분유를 생산 판매하고 있 다. 현재는 월 10톤규모를 생산 하고 있으나 그 생산을 점차 늘 려 매월 30톤 규모로 생산하리라 한다. 새로 인수한 경인특수사료 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부천시 역곡동 263번지



옥수수·밀 해외계약 생산

— 정부 자금책의 일환으로 —

정부는 불투명한 국제식량 수급 전망에 대처하기 위해 소맥, 옥수수 등 자금이 불가능한 양곡확보 대책으로서 해외계약 생산을 추진키로 하고 1차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3개국과 옥수수 계약 생산을 추진중이다.

2월 2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외곡의 적기확보를 위해 주요농업생산국과의 계약 생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우선 사료용 및 공업용 옥수수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월남등 3개국과 이문제를 협의키 위해 이미 관계당국자를 현지에 파견 교섭 진행중이다.

정부는 옥수수 계약 생산 이외에 소맥의 대량 생산국인 미국과도 소맥의 장기 계약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옥수수 계약 생산을 통해 우선 연간 50만톤 규모의 물량을 생산 도입키로 하고 있는데 현지 교섭 결과 ①생산규모 ②적접 또는 합작 등 투자 형식을 비롯한 구체 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1974년 수수 과잉생산 우려

미국 수수생산자협회는 74년도 수수생산이 예상은 초과 과잉 생산될 것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협회는 농민들에게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수수경작면적을 줄이던가 특히 건조지역에서는 여

름철 휴한(休閑)을 권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전 세계적인 곡물생산 감소로 인해 미국곡물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증했으나, 73년의 세계적 풍작에 이어 금년도 작황이 좋을 경우, 미국 곡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수수생산자들이 비료값이 배로 뛰고 다른 경작비용이 많이 오를짐을 감안하여 금년의 수수 생산을 계획하지 않는한 과잉생산의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추세를 보면, 61년의 1,218만톤에 비하여 71년에는 82.5%가 많은 2,223만톤이었으며 73년에는 2,400만톤이란 기록적인 생산이었다.

돼지 배설물의 사료화 연구 큰 진전

돼지 배설물을 다시 돼지사료로 이용하려는 연구가 최근 미국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의 하몬박사는 미국 사료 연구협회 연례회의에서 돼지 배설물을 건조시켜 다시 돼지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돼지 배설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몬박사는 돼지의 배설물을 산화저장 탱크에 모아 두었다가 이를 건조시키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다시 돼지사료로 사용하게 되면 가축사육으로 인한 공해를 줄이는 부가적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조된 돼지 배설물 속에는 10%의 단백질을 비롯해 칼슘,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돼지 배설물을 다시 사료로 사용하더라도 고기의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험결과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한협육종(주) 정기총회

한협가금육종(주)(대표: 박도현)은 지난 2월 12일 제 2기 정기총회를 갖고 1974년도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한협육종은 한협의 육성방안으로 현재의 주주 20여 부회장중 10여 부회장은 한협과 거래가 부진한 상태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로 요청하고, 외국계 도입 중단되었다하더라도 한협계 이용의 수지관계를 단일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우수하고 값싼 국산계를 육종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1974년도 종계육성 확보 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다.

번식용계통 : 산란계 G.P.S

	6,689수
육용계	" 8,904수
순종계통 : 산란계	" 5,103수
육용계	" 14,181수
합계	29,774수

▲종란, 식란생산 및 수급계획

종란	식란
백색산란계용 266,378개	30,705개
대형육계용 306,067개	50,758개
기타	792,302개

▲종계생산계획
(한협 122호, 333호, 353호)
(633호, 603호, 생산계)
462,000수

한경물산 회시 단백공 사업

12월 초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 종로구 관철동 32-6
전화: 74-9206